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동 우 컬 럼

신조어 난사형통

페루 집회는 사실 출발 전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다. 집회를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 이를 준비하는 문갑권 선교사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있었고,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스페인어 통역관인 이현숙 선교사가 출국 정지 상태였기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그랬을까. 우리 성도들의 꿈도 실통치 않았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었다. 나는 성도들에게 이현숙 선교사의 여권이 나올 수 있도록 합심기도를 요청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내 손길을 통해 암을 치료받았던 우루과이 내부부장관 비서실장이 준비된 것 아닌가. 그가 보증을 서고 힘을 써서 이 선교사의 여권이 회복되고, 출국이 허락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에 힘을 얻어 페루로 가는 일정을 사흘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내가 가서 직접 부딪쳐 해결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행기 표가 없었다. 네 번이나 비행기를 갈아타는 여정을 택했음에도 세 명의 좌석은 마련되었는데, 남미가 초행인 이지훈 전도사의 좌석이 없었다. 그래서 또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좌석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출국 전 수요일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연락이 왔다. 한 좌석이 나왔다고. 할렐루야! 나는 너무 기뻐서 선교 일행에게 문자를 날렸다. “난사형통이다~”. 그런데 아뵤쑈! 보내놓고 보니 난사형통이 아니라 ‘난사형통’이라고 보낸 게 아닌가. 우리 선교 일행들이야 톡 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기에 ‘할렐루야’라고 답이 왔다.

그런데 한참 ‘난사형통’이라는 문자를 보자니 문득 ‘난항 중인 페루 집회가 잘 되겠구나, 아울러 서울교회 문제도 잘 해결되겠구나. 이걸 오타가 난 게 아니구나.’ 하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었다.

난사형통(難事亨通)! 내가 만든 신조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난다. 그러나 난제도, 난항의 여건도 변화시킬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면 된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며, 고로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난사형통 되는 길은 오직 기도다!

목사님의 카톡 오타에서 비롯된 ‘난사형통(難事亨通)’의 신조어는 말 그대로 현실화가 되었다. 이현숙 선교사의 꿈부터 성도들의 많은 꿈들이 이번 페루(Peru) 집회나 목사님의 신상에 대해 많은 부정적 전망으로 들끓게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동안 출국금지 중이었던 이현숙 선교사가 우루과이(Uruguay) 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고, 또한 우리 선교 일행이 일정을 앞당겨 출국하기로 계획을 바꾼 관계로 동반 출국이 어려웠는데, 사흘 전 가까스로 좌석이 해결되며 모든 분위기가 일신되었다. 목사님은 페루 집회의 성공을 확신하며 ‘페루 집회 만사형통(萬事亨通)’이라고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난사형통’으로 비록 그때는 오타인

를 신경 쓰느라 노심초사지만, 이젠 연세도 있고 해서 한편으론 감사하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앞섰다. 8년 만의 기쁨의 재회를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마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장면 장면들이 어찌 그리 소중한지, ‘정말 우리가 진한 추억을 쓰고 있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다.

이튿날 아침 7시, 우리는 뿌갈바(Pucallpa)로 출발하기에 앞서 목사님 방에 모두 모여 서울의 수요일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렸다. 이날 이시대 목사님의 설교 중에 성경책을 모셔만 두지 말고 늘 가까이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김성자 전도사는 그제야 생각이 났다며 간증했다. 우리 일행을 위해 먹거리를 잔뜩 싸서 커

내셨다. 서울-페루 간의 멋진 리액션으로 이날의 수요일예배는 더욱 은혜로 풍성해졌으리라.

뿌갈바 공항에는 문갑권 선교사 가족과 현지 목회자 및 성도들이 나와 우리 일행을 환영해주었다. 선선하던 리마의 날씨와 달리 뿌갈바는 섭씨 35도가 넘는 폭염이었다. 시내 곳곳은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삼륜차(모터카)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다녔다. 차량보다 훨씬 더 많아 보였다. 도로 사정과 매연 및 먼지로 오래 타기에 힘들긴 하지만, 매우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그런데 도로를 지나며 보니 몇몇 모터카 뒷면에 부착된 집회 현수막 외에 집회 포스터나 대형 현수막이 걸린 곳을 찾기 어



페루 뿌갈바 집회(2023년 9월 22일~24일, 뿌갈바 메인스타디움)

것 같았지만, 이는 결국 성령께서 개입하신 바요, 이번 페루 집회를 상징하는 아주 정확한 말이 되었다.

물론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비행기를 네 번이나 갈아타며 사흘에 걸쳐 도착한 페루의 수도 리마(Lima). 공항에는 라구나(Laguna) 목사님과 이현숙 선교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8년 만의 재회였다. 목사님 말씀처럼 죽었던 이산가족 만나듯 벅찬 감회가 남달랐다. 공항 근처 숙소에 여장을 풀고 저녁식사를 하는 중에 미국 뉴저지(New Jersey)에서 김성자 전도사가 짐을 바리바리 싣고 도착했다. 언제나 우리 먹거리

다란 짐을 싣고 미국 뉴어크(Newark) 공항에 갔는데 규정된 짐의 무게를 초과했다며 페널티를 천 달러나 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짐을 정리하느라 가방을 열었는데 거기에 김 전도사의 낡은 성경책이 나오자 이를 본 항공사 직원이 그냥 통과시켜주더라. 그뿐이 아니었다. 페루 리마 공항에 도착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짐을 일일이 열어보며 된장, 고추장 등을 뺏으려 하던 세관 직원이 그 속에서 역시 그 낡디낡은 성경책을 발견하고는 가방을 닫고 통과시켜주더라는 것이다. 목사님은 이거야말로 멋진 간증이라며 바로 서울로 그 내용을 문자로 보

려왔다. 사전 점검 차 집회 장소에 가보았다. 그 넓은 경기장 이곳저곳에서 성도들이 구역을 나눠 청소하고 있었다. 예감이라는 게 있다. 오래 집회를 경험하다 보면 사전 분위기에 얼추 견적이 나오는데, 뭔가 켜~한 느낌이었다. 목사님은 문 선교사에게 즉시 방송설교나 좌담회를 할 수 있는 방송시간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전쟁은 시작됐고 전쟁에는 왕도가 따로 없는 법, 오직 이기는 것만이라는 길이기 때문이다. 최대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자세로 목사님은 이튿날부터 이틀에 걸쳐 아침마다 방송국을 찾아 집회 홍보에 올인하셨다.(3면에 계속)



이틀간 진행된 방송좌담회



8년 만에 다시 만난 남미선교팀



집회팀의 이동수단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딤후3:15~17)



충고나 책망은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보물이다

목회 초기에 저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설교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성도들 보기에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박용선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자주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마세요. 강패입니까?”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장로님 손을 잡으며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장로님의 충고를 받아들여 바지 주머니를 재봉틀로 박아 나쁜 버릇을 고쳤습니다.

또 한 번은 단에서 “눈깔을 빼버릴까 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화집에 한 말인데, 역시 박용선 장로님이 “그런 말 쓰지 마세요.”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양약은 입에 쓰고 조언은 귀에 거슬린다

충고, 훈계, 조언, 권면... 사실 다 쓴소리입니다.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보물이란 것을 아십니까? 충고나 훈계는 사랑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남의 자식에게 충고합니까? ‘뉘 집 자식인지 쫓쫓...’ 하면 끝입니다. 충고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므로 가장 값진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을 뺏으면서 충언, 조언해주는 자가 있다면 그의 옷자락을 잡아서라도 곁에 뒹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잠13:14).

정말 그런지 성경 속 인물을 통해 조명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건강을 해치지 않고 무거운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일부터 대사까지 모세를 만나려는 자들이 장사진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십부장과 오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들었습니다(출18:24).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출해내라는 하나님의 명을 직접 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신을 섬기는 장인의 말에 코웃음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인의 말을 경청하고 합당하게 여겨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훌륭한 행정, 사법조직을 갖춘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출18:13~24).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바로 역시 충고를 받아들여 애굽을 굳건히 세운 자입니다. 바로는 아무도 해몽하지 못한 꿈이

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었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줍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애굽에 일곱 해 풍년에 이어 흉년을 잇을 만큼 지독한 일곱 해의 흉년이 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해몽에 그친 것이 아니라 흉년 시절에 잉여분을 저장하여 닥쳐올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바로가 지혜로운 자임은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해몽만 하라고 했지, 주제넘게? 그건 우리 대신들이 할 몫이다. 닥치거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요셉의 충언을 받아들였고,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2인자 자리까지 맡겨 주었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래서 사 망의 그 늘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애굽을 세계 최강국, 최부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 장군도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기대 이하의 대접을 받은 나아만 장군이 대노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의 종이 충언을 아뢰니 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왕하5:13). 나아만이 ‘요단강에 빠져 죽으라’ 한 것도 아니고 일곱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는데 그것도 못하십니까?라는 종의 말을 들었더니 고름이 줄줄 흐르던 문둥병이 고침을 받아 어린이가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다윗도 치명적인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충고에 회개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쓴소리, 잔소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뭘 하지 마라.’, ‘뭘 꼭 해라.’ 이러니까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나 하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여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 일에 쓰기에 합당하게 만들려고 주신 겁니다(딤후3:16~17).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요3:16), 즉 당신의 아들을 죽여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충고하고 시고, 권면하시고, 훈계하시 온전한 자로 만드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즘 항저우에서 아 시 안 게 임

이 한 창 입 니다. 그 런데 거기에 코치 없이 단독으로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No. 세계 신기록 보유자라도 다 코치 말을 듣고, 코치의 지도를 따르는 겁니다. 코치가 하는 일은 뭘니까? 단점, 부족한 점, 허점을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하냐요? 아닙니다. 더 좋은 기록 내라고, 순위에 들어서 메달 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듣기 싫어하면 발전과 성장이 없지요.

그런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입니다. 왜 충고를 거절하느냐? 거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잠9:8). 그런 자들은 궁핍과 수욕을 당하게 되지요(잠13:18).

사무엘상 22장을 봅시다. 사울은 오직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도액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고 고합니다. 그러

자 사울은 즉시 아히멜렉을 불러 추궁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충언을 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이이까”(삼상22:14). ‘다윗에게 그러지 말라. 죽이려고 하지 말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그 말에 깨닫기는커녕 사울은 더 자극을 받아 아히멜렉은 물론 그의 가족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사울이 충고를 달게 받아들였다면 그의 말로는 분명 달라졌을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분별력이 없어 노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젊은이들 말에 놀아나더니,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왕상12).

웃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성하게 했습니다.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졌습니다. 그러자 점점 교만해지더니 급기야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을 하려 했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아사랴를 비롯한 제사장 80명이 왕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웃시아 왕이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 하다가 문둥병이 발했고, 웃시아는 별궁에서 외롭게 살다 죽었습니다(대하26). 세레 요한의 충고를 무시한 헤롯, 미가야 선지자의 충고를 거절한 아합, 예수님의 충고를 무시한 가롯 유다,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고나 권면에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까요?

밥이 육체의 보약이듯 충언은 영혼의 보약이다

끝으로 충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 충고했는데 안 들으면 다시 충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었는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신뢰를 얻지 못했을 때는 ‘너나 잘하세요.’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셋째, 충고할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하지 말고 직접 얼굴을 보고 해야 합니다(잠27:5). 넷째, 내 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다섯째, 화났을 때 권면하면 안 됩니다. 화풀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상대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을 마음일 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 뒷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울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조언과 권면해주는 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감사하며 귀를 열어 들으면, 그 조언을 들으면 영·혼·육이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1면의 계속)

늦은 밤, 방송사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마르도queo(Mardoqueo) 목사와 좌담회에 출연하여 질문을 담당할 현지 목회자 3명을 숙소로 불러 카메라로 촬영하며 사전 리허설을 진행했다. 목사님은 그들에게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당신들의 신학적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나 불신자 입장에서 일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이 방송을 보고 집회장으로 몰려오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질문을 수정하고 진행을 조율하며 리허설을 여러 번 진행하셨다. 그리고 촬영된 영상을 다시 함께 보며 밤늦게까지 각자의 질문과 역할을 각인시키셨다. 이튿날 아침 8시, 방송이 시작되고, 목사님이 페루에 오신 이유, 누구나 집회

에 참석할 수 있는지, 주위에 이런저런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있는데 참석하면 고침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목사님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답하시며, 시청자들에게 꼭 집회 장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하라고 촉구하셨다. 1시간 방송에 혼신을 다하시고, 다시 이어서 10시부터 목회자 세미나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목회자 세미나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질의 문답시간이었는데, 마지막에 앞으로 나온 한 노(老) 목회자가 질문보다 페루교회가 십일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졌다고 깊이 자성하는 대목이었다. 이는 목사님이 강의 마지막에 보너스로 말씀하신 말라기서 강해에 대한 반응이었다. 미국의 하

나님, 한국의 하나님과 이 페루의 하나님이 다를 수 없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왜 페루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깨달았다는 것이다. 참석한 목회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아침 방송과 목회자 세미나로 이어진 강행군에 목사님은 지칠 대로 지쳐 식사도 못하시고 숙소에 누우셨지만, 전쟁의 기선을 잡았다는 확신이 다가왔다. 휘방자들의 이야기에 우물쭈물하며 이편에 설까, 저편에 설까 하던 목회자들 가운데 확실한 아군이 되어 돕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아침 방송이 나간 후 방송국과 진행자에게 전화가 폭주했단다. 다음날도 계속해달라는 시청자들의 요청이 많으니 내일도 출연해달라고 문 선교사를 통해 알려졌다. 내일은 집회가 시작되는 날이라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지만, 목사님은 “이 전쟁에 지면 다 소용없는 일이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광고하며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서 방송을 열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니. 당연히 해야지.”라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역시 아침 8시부터 방송이 시작되었다. 방송 중에도 시청자들의 전화가 계속 걸려온다며 사회자가 수시로 자리를 뜨곤 했다. 이 선교사는 방송을 이를 진행하고는 가슴이 벌렁거리며 집회가 잘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다고 기뻐했다. 모든 집회를 마친 지금 복기해보면, 이 양일간 진행된 방송좌담회가 집회

홍보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다. 이 또한 한국의 모든 성도들과 땅끝예수전도단 회원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였음을 확신한다. 그러나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안심할 수 없었다. 집회 시작 2시간 전부터 찬양팀들이 나와 뜨겁게 찬양을 하고, 페루 국가도 부르고 했지만, 회중석은 앞에 몇 자리를 제외하곤 텅 비어있었다. 주여~~, 가슴이 답답하다. ‘아버지~, 당신이 보내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요6:65), 이 먼 길을 노구를 이끌고 온 당신의 사랑하는 종과 애통하며 이 집회를 위해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경기장으로 입장하는 성도들을 촬영하기 위해 입구로 가서 기다렸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꾸준히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전에 멕시코(Mexico) 메리다(Merida) 집회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런 경기장을 채우려면 약 2시간 동안 입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7시가 넘자 반 이상이 찼다. 그리고 꾸준히 성도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목사님께 현재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드렸다. 목사님도 안도하시는 느낌이였다. 그렇게 첫날 첫 집회가 시작되었다. 난공사에 이익이 많다고 난사형통의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어렵사리 이루어진 페루 뿌깔빠 집회는 이렇게 막을 열었다. (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일본 집회 10월 16일 ~ 24일

:: 세상을 보는 창 ::

:: 생명의 말씀 ::

장애물 경주 같은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꼭 장애물 경주와 같다. 장애물을 겨우 하나 통과하고 나면 결승선이 아니라 또 다른, 아니 좀 더 어려운 장애물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더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 신앙생활의 큰 그림을 보고 달려야 한다. 큰 그림을 본다는 것은 청사진을 보는 것이며, 선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신앙생활의 목표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요10:10)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개인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갖는데 포커스를 두어야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영혼구원과 제자 삼아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교회’(마28:19~20, 창1:28)를 세워가는데 두어야 한다. 둘째로, 신앙생활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일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주일에배’로 한정한다.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

에 예배드리는 종교 활동이 아니다. 매일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다. 셋째로,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근육은 운동을 반복할 때 만들어지듯이, 믿음의 근육은 꾸준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반복해야 만들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히12:2), 믿음의 근육이 더 튼튼해진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도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의 근육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긍정의 생각을 선택하고, 나쁜 생각은 버리는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고후10:5), 우리 생각의 근육은 강해진다. 결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앞의 수많은 장애물은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 주저앉지 말고 단련하여 넉넉히 이기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정금 전도사

무게중심, 예수중심

2023 예수중심신학원 개강 및 후기 신입생 입학예배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먼저 이런 화두를 던지셨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몸이 귀하냐? 웃이 귀하냐? 믿음과 지식, 어느 것이 귀하냐?’ 무게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신학 공부를 하느냐는 말씀이다. 믿는 자에게는 닭이 먼저다. 그 이유는 진화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이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실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 믿음이 지식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 지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만들어주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무게중심은? 당연히 ‘예수중심’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며, 말씀이 그렇다 하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어야 한다. 그래서 신학 공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몫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존재 자체를 믿어야만 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믿어야만’ 한다(히11:6). 일단 믿음이 먼저 오면, 나머지 이해는 그저 추구하면 될 일

이다. 완벽히 이해되어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신학을 학문으로서 공부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지식으로 끝장을 보려고 한다. 인간의 지식은 합리성을 추구하기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런 사람은 합리적인 선에서 자기 이해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깎아내린다. 그런 극단의 끝에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 아니라, ‘그저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추구했던, 좋은 인간 모델에 불과할 뿐이다. 거듭나지 않으니, 믿기보다 이해하는 게 더 좋은 거다. 많은 신학 지식이 궁금하여 신학교에 입학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학 공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버릴 때, 전도몽상(顛倒夢想)이 될 위험성이 도사린다고 경각심을 심어 주셨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견주어서 섬길 수는 없다. 합리성에 굴복하여 결국 반기독교인이 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18:8).

송지화 목사

:: 간증 ::

:: 귀를 기울이세요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는 예수중심제자신학원에 재학 중인 권보배 생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세종예수중심교회를 맡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도님들과 위성예배로 주일과 수요일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20세 때 새벽예배를 드리러 가서입니다. 그 당시 저는 친구 따라 동네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새벽예배가 끝나고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기도합시다.” 하시며 불을 꺼 주셨는데, 저의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그동안 잘못된 일들이 아주 작은 것까지 기억이 나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되

었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입에서 이상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교회 잘못 다니면 ‘미친다’는 소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미치나보다 생각하며 나중에 정신을 차려 보니 같이 기도를 시작했던 분들은 없고 저 혼자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교회 밖으로 나오니 꽃들이 방글 방글 웃는 것 같고, 길가에 가로수들이 저를 향해 응원하며 박수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제가 싫어하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남편을 만나 주일이면 저 혼자 가까운 교회에 가서 1시간여 예배드리고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 앞집에 사시던 예수중심교회(당시 한국예루살렘교회) 조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김치부침개를 열심히 구워주시며 “새댁,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는 말에 저도 모르게 ‘알았어요’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인천 송의성전에 갔습니다. 교회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였고, 흰 양복과 흰 구두를 신으신 독특한 목사님과 드럼 소리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제가 전에 했던 이상한 말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속으로는 ‘뭐지?’ 하면서도 주일이면 저의 발걸음은 그 교회로 향했고, 어느 순간 다시금 눈물이 터져나오며 제 입에서 방언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주일에 집안 대소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집안에서 행해지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와 친정 식구까지 하나가 되어 저를 비난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남편과 식구들에게 분이 되려고 영과 혼과 육의 삶 가운데 무던히도 애를 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사 날짜와 명절이 다가오면 온 집안 식구들의 불평불만의 소리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저의 외로운 씨름이 계속되었고, 10여 년 세월을 명절이면 제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 보일러실에 숨어있기도 하고 거리를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제사 지내러 가자던 남편은 감사하게도 장로님이 되어 작지만 세종예수중심교회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천하신 시어머니와 친정아버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친정엄마를 뵈 때마다 우리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 받으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권보배 생도

‘666버거’?

청년부 교육관을 가는 길에 충격적인 이름의 햄버거 매장을 보았다. 이는 ‘666버거’라는 회사로 얼마 전 방송에서 PPL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바로 교회 근처 거리에 사탄의 숫자를 가진 패스트푸드점이 생기고 있는 것이 놀라웠다. 이 매장의 햄버거는 끝끝거리는 악마의 모습의 그림을 포장지로 사용했고, 메뉴 이름도 ‘diaboli(악마의)’였다.

KTX를 타고 익산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한 카페 입구에 커다란 뱀이 그려져 있었다. 옛 뱀과 용은 사탄의 상징이라고 성경에서 배웠는데, 기차역이라는 공공장소에 대문짝만한 뱀을 노골적으로 홍보한 카페가 있다니 이것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뱀을 모델로 한 이 카페의 음식 메뉴에도 파이썬 커피, 스네이크 셰이크 등 모든 메뉴에 뱀을 달아 놓았다.

얼마 전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NIKE)에서는 사람의 피를 한 방울 넣어 만든 운동화를 ‘사탄의 운동화’로 마케팅하고 666컬레를 한정 판매한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미국 스트리트웨어 업체 미스치프가 기존의 나이키 에어맥스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사탄을 콘셉트로 맞춤 제작한 것이다. 이 운동화의 판매 가격은 1,018달러(약 115만 원)로 책정됐고, 신발에는 누가복음 10장 18절(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이 적혀있다. 이 운동화는 출시한 지 1분 만에 매진되었는데, 전 세계적인 비판에 나키는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제작업체와 손절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용의 그림이 그려진 도자기, 뱀이 그려진 옷가지도 버리라고 늘 말씀하신다.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이 먹는 음식이나, 착용하는 소지품에 악의 형상인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때가 악하다. 마지막 때일수록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에 더욱더 분별하는 크리스천이 되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5:22).

송현혜 생도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노량진 교육관)
유튜브 생방송 문의 02. 533. 9191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화려한 퇴장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 되게 하소서’ 나이가 많아지면 흔히들 ‘철이 든다’ 했던가? 어느덧 내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은 부쩍 기도가 그쪽(?)으로 흐른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살까?’였는데, 그게 바뀌었다. ‘어떻게 하면 멋지게 죽을까?’로 말이다. 이게 철이 들었다는 증거 아닐까?

오래전에 나는 성경을 보다가 나의 로망을 발견했다. 그가 바로 세례요한이다. 그의 등장은 초라했다. 악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보잘것없는 모습이였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최초의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는가? 그는 그 누구도 감히 엄두도 못낼 일을 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자가 누가 있던가! 예

수님을 소개한 최초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유일한 사람, 카~ 얼마나 멋진가!

한때 나는 방송을 진행하는 명 MC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나는 세례요한이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멋진 MC라 생각했다. 그 시로 나는 내 이름을 ‘요한’이라 바꾸었고, 나도 어둠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전하는 명 MC의 삶을 살다가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도 요한처럼 멋지게 살다 죽고 싶었기 때문이다.

혹자는 말할 것이다. 젊은 나이에 죄도 없이 헤롯에게 목 잘려 죽임을 당했는데 뭐가 멋진냐고? 아니다. 자기의 할 일을 충실히 다하고 간다면 비록 짧지만 그 삶은 멋진 삶이다. 짧지만 자기의 소임을 다하

고 간 사람,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던가? 내게 맡겨진 소임을 다한다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이던가!

나는 등장보다는 퇴장을 멋지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내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기도이다.

‘주여, 내 생을 마치는 날 꼭 이 말을 남기고 가게 하소서. 주님 저도 다 이루었습니다.’이다.

기도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게 하심이다. 따라서 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그 주님을 따라 힘차게 뛰어간다.

‘주님, 저도 다 이루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화려하게 퇴장하고 싶다.

전요한 목사

